

르 꼬르뷔지에의 자울주택: 대량생산용 저층 집합주거의 원형

鄭成鉉

((주)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축연구소 / 소장)

1. 들어가는 말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8)의 자울주택(Maisons Jaoul à Neuilly-sur-Seine, 1951-1955)은 마르세이여의 유니테 다비다시옹(Unité d'Habitation à Marseille, 1947 - 1952)과 함께 국제적인 브뤼탈리즘(Brutalisme International)의 출발점으로 보며 재료의 건축적 아름다움에 그 가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 바로 이러한 어떤 이즘(isme)의 범주에서의 해석 때문에 자울주택에서 의도한 르 꼬르뷔지에의 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로 인해 이 작품은 건축가의 본 목적은 제외한 채, 브뤼탈리즘이라는 건축운동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정의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의 작품 해석에 앞서, 한 건축가의 작품들은 모두 그의 어떤 일관

된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의 연속으로 간주하고 자울주택에 담긴 르 꼬르뷔지에의 일차적인 건축 의도를 먼저 밝히는 것이다.

2. 저층형 대량생산 주택의 표준화

“부모님은 집을 한 채 갖기를 몹시 바랬으며, 뇌이이(Neuilly)에 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젠스키(Wogenscky)에게 집을 부탁했으나 꼬르뷔(Corbu)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무지무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그에게 감히 그러한 부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²⁾ 르 꼬르뷔

1) 자울주택을 미학으로써만 다룬 동기는 브뤼탈리즘의 출현을 최초로 알린 레이너 벤함의 글 “The new brutalism”, *Architectural Review*, décembre, 1955, pp. 355-361과 이 운동을 역시 최초로 정리한 그의 저서 *Le Brutalisme en Architecture*, Dunod, Paris, 1970, 196 p.에서 출발한다.

2) “Mes parents avaient très envie de se faire construire une maison. Ils avaient acheté un terrain à Neuilly. Ils avaient commandé une maison à Wogenscky. Quand Corbu a su cela, il a été fou de rage. En fait, mes parents n'avaient pas osé le lui demander.”, Marie Jaoul, “Les maisons de l'enfance: la maison Jaoul”, propos recueillis par François Barré, *Architecture d'Aujourd'hui*, septembre, 1979, p. 85. 글쓴이 마리 자울은 앙드레 자울의 손녀이며 이 글은 자울주택에서 보낸 그녀의 유년 시절을 회상한 것이다. 본문의 인용에서 꼬르뷔는 르 꼬르뷔지에의 애칭이다. 르 꼬르뷔지에 탄생 100주

지에가 집의 평면을 보았을 때, 그는 앙드레 자울에게 대뜸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이 가격으로 나는 두 채의 집을 지어 주겠소! 그것도 궁룡형으로 된 집을!”³⁾ 마리 자울의 회상과 르 꼬르뷔지에의 제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것이다: 왜 그는 앙드레 자울(André Jaoul)이 그의 제자 앙드레 보젠스키에게 주택을 의뢰한 것에 대해 그렇게 심한 화를 냈으며 또, 이 계획

에 대해 그는 마치 오래 전부터 이것을 구상한 것처럼 그 형태를 서슴없이 제안했을까?

1935년 르 꼬르뷔지에는 미국 방문을 위해 뉴욕 행 여객선을 탄다. 여기서 그는 사업가이며 아마추어 미술 수집가인 앙드레 자울을 만났다. 이후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과 미술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앙드레 자울은 그의 중요한 고객이 되었으며 르 꼬르뷔지에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앙드레 자울의 시골 땅에 그의 가족을 위한 별장(Maison Campagne pour André Jaoul, 1937)을 계획해 주기도 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이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앙드레 자울이 자신에게 주택을 직접 부탁하지 않은 사실에 르 꼬르뷔지에는 화가 났던 것일까? 사실 그는 자신의 몫이라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질 때, 그것을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다. 특히 그의 제자와 관계될 때면 더욱 그랬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이유 때문은 아닐 것이다. 혹시 전쟁이 끝난 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일까? 비록 한때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마르세이여의 위니페다비따시옹계획 이후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주문으로 이때는 그의 건축 생활에서 가장 바쁜 시기였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자울주택에 그는 그토록 애착을 갖는 것일까?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자울주택과 동일한 형태의 주택인 뤼에페르교수 주택(Maison du Prof. Fueter, 1950) 계획에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의 일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건축주인 뤼에페르교수에게 그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우리들은 부르조와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노출벽돌의 거침, 벽돌공이 거칠게 처리한 이음매들, 주거 내부의 노출 벽돌조에 칠해진 도료, 등등... 나는 당신의 집이 그렇게 누추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

년 기념으로 출판한 다음의 책에 같은 내용의 글이 다른 제목으로 실려있다: “A man who hates children, cannot be all bad”, *Corbu vu Par...*, Pierre Mardaga, Bruxelles, 1987, pp. 67-68. 마리 자울의 글에는 르 꼬르뷔지에의 제자 앙드레 보젠스키에게 앙드레 자울이 집을 부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까롤린 마니아끄 (Caroline Maniaque)의 논문에 인용된 다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르 꼬르뷔지에의 친구인 영국 건축가 클리브 엔트휘슬르(Clive Entwistle)로 되어있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그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은 생략한다. 참고로 까롤린 마니아끄의 글에 실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땅을 산 후 자울부부는 먼저 르 꼬르뷔지에의 친구인 영국 건축가 클리브 엔트휘슬르에게 집을 부탁했다. 그래도 그들은 르 꼬르뷔지에게 집의 평면을 보여 주었고 르 꼬르뷔지에는 단일 건물에 두 주거가 있는 계획을 비평했다. (...) 르 꼬르뷔지에는 하나의 직선형 주택 계획과 반대되는 별개의 두 건물로 된 주택에다 이국적이면서도 품위 있어 보이는 성격으로써 구성의 반복을 표현하는 반원형 궁룡을 축석에 제안했다.(Après avoir acquis ce terrain, les Jaoul s'adresèrent d'abord à un ami de Le Corbusier, un architecte anglais, Clive Entwistle. Ils montrèrent tout de même les plans à Le Corbusier, qui critiqua ce projet regroupant dans une construction unique les deux logis. (...) Le Corbusier proposa d'emblée, à l'opposé de ce projet unitaire et rectiligne, deux unités d'habitation distinctes et la voûte présentée comme une caractéristique étrange et valorisante, leitmotiv de la composition.)”, Caroline Maniaque, “Les maisons Jaoul de Le Corbusier”, *Histoire de l'Art*, no 1/2, 1988, p. 75

3) “Pour ce prix-là, je vous en fais deux, des maisons! Et vous aurez des voûtes!”, “Entretien le 26 avril 1986 avec S. Bertocchi” dans Caroline Maniaque, *Ibid.*, p. 75

하며 당신은 적어도 20%의 경비 절감을 할 것입니다.”; “이 건축 형태는 평지든 주변에 정원 공간이 전혀 없는 높은 곳이던 어떠한 장소에서도 지을 수 있도록 당신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당신의 양배추를,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곳에 심을 겁니다.”⁴⁾ 서민주택, 마감하지 않은 재료와 이에 따른 20%의 경비 절감, 밭에다 양배추를 심듯 어떠한 장소에도 적합한 주거 형태는 서민을 위한 대량생산 주택 표준형의 제시를 뜻한다. 반면에 이것은 그의 건축을 단번에 세상에 알린 돔-이노 주택(Maisons Dom-ino, 1914) 원리와 그 실천안이었던 시트로안주택(Maisons Citrohan, 1920, 1922)부터 집요하게 추구한 백색 상자형 주택과는 분명히 다르다. 사보이주택(Villa Savoye, 1928-1931)에서 볼 수 있는 백색의 순수성, 주변 환경과의 강한 대비, 새로운 건축의 다섯 가지 요소(5 éléments de l'architecture nouvelle)의 적용 등, 그 어느 것도 뤼에뎀르교수 주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왜 그는 여기서 시트로안주택 계열 내지는 그 대량생산의 실현이었던 빼삭의 프뤼제 주택단지(Cité Frugès à Pessac, 1926)와는 전혀 다른 형을 제안했을까? 흔히 제임스 스티어링(James

Stirling)의 견해처럼 “단순히 개인적이며 반 기계 미학”의 또 다른 건축 세계 추구인가 아니면 케넬스 프램프톤(Kenneth Frampton)의 말처럼 “과거로의 회귀”인가?⁵⁾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을 니콜라우스 페브스너(Nikolaus Pevsner) 계열의 근대건축의 ‘발전’이라는 시각으로 볼 때, 뤼에뎀르교수 주택안이나 자울주택 같은 전후의 건축은 확실히 스티어링의 견해처럼 근대 건축 운동의 노선을 이탈한 비합리적 건축 내지는 프램프톤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퇴보로 보인다. 마치 그의 전후 건축은 더 이상 그의 초기 건축의 길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대건축의 발전 과정에도 동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르 꼬르뷔지에가 자신의 작품들이 아카데미즘의 범주에 엄격하게 분류되는 것을 원치 않는 반면, 평범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건축(vers une architecture)’을 만들기 원했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의 일생의 건축 목표가 자연안에서의 순수한 인간의 삶이 담긴 건축과 예술의 통합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의 실현을 추구했다는 것을 안다면⁶⁾, 르 꼬르뷔지에가 초기에 설정한 자신의 건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자신의 생각을 건축에 일관되게 펼쳐 온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시트로안주택이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화와 경제적인 조건”⁷⁾을 위한 것이며 빼삭의 프뤼제 주

4) “Nous ne sommes pas des bourgeois, nous apprécions la rudesse des briques brutes, des joints rudement faits par le maçon, le badigeon passé sur une maçonnerie de briques brutes à l'intérieur d'une maison, etc... Je suis persuadé que votre maison sera beaucoup mieux en étant rude et vous économiserez au moins 20% sur la dépense, ce qui vaut la peine.”, “Lettre de Le Corbusier au professeur Fueter, 17 mars 1950” dans Caroline Maniaque, “Lettres aux clients, lettres aux artisans: le cas des maisons Jaoul”, *Le Corbusier, Ecritures*, Fondation Le Corbusier, Paris, 1993, p. 62; “Ce genre d'architecture est fait pour vous permettre de vous installer sur n'importe quel terrain plat ou plateau, sans avoir besoin d'aucun jardinage tout autour; vos choux, vous les cultiverez où cela vous plaira”, “Lettre inédite du 15 juillet 1946”, cité dans Stanislaus von Moos, *Le Corbusier: l'Architecture et son myth*, p. 109

5) James Stirling, “Garches to Jaoul: Le Corbusier as domestic architect in 1927 and 1953”, *Architectural Review*, september, 1955, p. 151과 Kenneth Frampton, *L'Architecture Moderne: Une histoire critique*, Philippe Sers, Paris, p. 196을 볼 것.

6) 르 꼬르뷔지에는 그의 초기 저서 *Vers une Architecture*(1923)에서 밝힌 자신의 생각을 마지막 저서 *Mise au Point*(1966)까지 곳곳에 일관되게 드러낸다. 특히, *La Charte d'Athènes*(1933)과 *Entretien avec les Etudiants des Ecoles d'Architecture*(1943)에 잘 나타나 있다.

7) Le Corbusier, *Œuvre Complète*, t. 1, p. 80 시트로안주택의 초기 제안(1920)에서도 사실상 르

택단지에서 그가 그것을 실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프뤼제 주택단지의 현실은 그의 생각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표준화에 따른 짧은 공사기간은 가능했지만 공사비는 그의 생각과는 달리 3-4배나 증가되어 저렴한 가격의 대량생산 주택 개념과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1931년 이 곳을 방문했을 때, 순수형의 주택이 평범한 주민들을 위한 주택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메모장(Carnet)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빼삭 // 1931. 주민들은 돌아왔다 // 그러나 수년 동안 버려진 후에 // 주택의 모습은 지저분했다 // 몹시 지저분했다.”⁸⁾ 입방체의 순수형과 근대 재료의 포기를 알리는 순간이며 그가 즐겨 사용한 백색 건축의 포기를 뜻한다. 한편, 그가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 동안 추구해 온 백색 상자형 건축들의 높은 건설비는 평범한 서민용 주택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그나마 30년대의 전반적인 불경기로 사실상 그의 꿈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⁹⁾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들이 르 꼬르뷔지에게 대량생산 주택의 개념을 수정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프뤼제 주택단지 이후 그는 이를 대체할 만한 경제 조건이 고려된 그리고 새로운 미학이 결합된 새로운 형의 표준주택안을 실현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건축 생활 초기부터 연구한 대량생산 주택 규칙의 바탕인 경제 조건¹⁰⁾을 우선한 도시민들의 주택 표준안, 프뤼제 주택단지의 실패와는 달리 참으로 경제 조건과 인간 조건을 동시에 생각한 새로운 주택 그러나 결코 실현하지 못했던, 웨르셀의 농가 주택단지(Résidence à l'intérieur d'un domaine agricole près de Cherchell, 1942), 쟁뜨 봄과 갑 마르탱의 “로끄 에 로브” 주택단지(Ensembles de Sainte-Baume, 1948 et de “Roq et Rob” à Cap Martin, 1949) 그리고 퀴에페 르교수 주택 안을 실현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그

꼬르뷔지에는 경제 주택의 재료로서 자울주택 계열에서 사용한 지방 재료를 벽체 구성 요소로서 제안을 했었다: Stanislaus von Moos, *Ibid.*, p. 66

가 자울주택을 짓고 싶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앙드레 자울의 주택 계획을 들었을 때, 지극히 제한된 예산과 계획하기 힘든 좁고 긴 부지에 건물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이전부터 꾸준히 제시해 왔던 카탈로니아 지방의 반원형 궁륭과 노출 벽돌 그리고 노출콘크리트를 자울주택에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프뤼제주택단지 이후 추구한 경제 주거를 마르세이여의 위니페 다비따씨옹의 고층형 대량생산용 주거와 함께 자울주택에서 저층용 대량생산 주택형을 유럽 전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현한다.

3. 궁륭형 지붕과 자연재료의 노출: 경비 절감과 아름다움의 결합

- 8) “Pessac // 1931. Les habitants sont venus // mais après les années d'abandon // le visage des maisons est sale // très sale.”, Le Corbusier, “Carnet B 6” dans *Carnets 1: 1914-1948*, Illustration 344. 피터 블레이크는 르 꼬르뷔지에게 근대건축의 순수형과 재료를 포기한 원인으로 근대 재료의 시공상 문제점과 사후 관리의 어려움으로 보았다: Peter Blake, *L'Architecture Moderne est Morte à Saint-Louis*, Moniteur, Paris, 1980, pp. 42-52의 “La Quête de la pureté”편을 참조할 것.
- 9) 순수 백색상자형 주택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라로쉬주택(Maison La Roche, 1923-1925), 메이에르주택 계획(Maison Meyer, 1925-1926), 쿡주택(Maison Cook, 1926-1927), 가르쉬의 스텐주택(Villa Stein à Garches, 1928-1931), 처어치주택(Villa Church, 1927-1930) 그리고 사보이주택(Villa Savoye, 1928-1931)을 들 수 있다. 당시 르 꼬르뷔지에게 지은 주택의 건설비에 대해서는 Gilles Ragot et Mathilde Dion, *Le Corbusier en France*, Electa Moniteur, Paris, 1987, 207 p. 와 “l'Annexes” dans Tim Benton, *Les Villas de Le Corbusier et Pierre Jeanneret, 1920-1930*, Philippe Sers, Paris, 1984, pp. 218-219를 참조할 것.
- 10) Le Corbusier, *Vers une Architecture*, p. XX 아래를 볼 것. 그의 건축은 항상 경제법칙과 관련된다.

“상반된 규제를 갖는 까다로운 땅, 복잡한 계획, 현실 가격을 생각할 수 없는 개인 건물로 엄격하게 제한된 경비.”¹¹⁾ 자울주택에서 르 꼬르뷔지에는 전후 가장 어려운 경제 조건과 땅의 두면이 도로에 접한 좁고 긴 형태의 건축을 동시에 해결해야만 했다. 여기에 대한 해결로써, 그는 가장 기본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재료인 벽돌, 평기와, 노출된 카탈로니아 궁륭, 잔디 덮은 지붕의 사용과 값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궁륭 건조에 익숙한 알제리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무엇보다도 제한된 예산이 재료의 선택과 노동력을 일차적으로 한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웨르셀 농가 주거단지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며¹²⁾ 그 기원은 훨씬 더 이전인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반원형 궁륭을 사용한 대량생산용 주택부재의 표준화 계획은 사실상 시트로안 주택보다 앞선 1916년의 해변주택(Villa au bord de la mer pour Paul Poiret)과 1919년의 모놀주택(Maisons Monol)에 최초로 나타난다. 해변주택의 반원형 궁륭은 경비 절감과 부재의 표준을 위해 구상한 것이며¹³⁾, 모놀주택에서 그는 이것을 특허화 하여 전국적인 보급을 꾀했었다¹⁴⁾. 또한 궁륭형은 예술가의 집(Maison d'un Artiste, 1922)에서 볼 수 있듯이, 제한된 면적일 경우 심리적으로 상자형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얻을 수 있어 여러모로 한정된 공간을 갖는 서민용 주택으로는 적절한 것이었다. 이후 르 꼬르뷔지에는 궁륭형을 자연 재료와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건축 미학의 가치를 실험하게 되는데, 뵘르트 몰리포르의 임대아파트(Immeuble locatif à la Porte Molitor, 1933)와 집단농가 마을계획인 협동마을(Village Coopératif, 1934-1938)¹⁵⁾을 들 수 있다.

한편, 뵘르트 몰리포르의 임대아파트에서 사용

12) “재료와 숙달된 노동력의 부족: 궁륭을 지지하는 3종류의 벽으로 된 표준형 트라베(travée: 궁륭을 지지하는 보간 거리): 정방형 기둥, 이분의 일 트라베를 지지하는 벽, 트라베 전체를 지지하는 벽 = 짜 맞추기의 유희. (...) 결과: 3재료의 조합: 노출된 조적 공사, 흰색 석회칠 한 궁륭, 나무 칸막이. (Pénurie de matériaux et de main-d'oeuvre spécialisée: Travées standards avec trois sortes de murs portant les voûtes: le pilier carré, le mur demi-travée, le mur travée entière = jeu des combinaisons. (...) Résumé: jeu des trois matériaux: la maçonnerie apparente, les voûtes de chaux blanche, les cloisonnements de bois.)”, *Ibid.*, t. 4, p. 122

13) “해변주택은 대량생산 부재로 건설한다: 5미터 간격의 철근콘크리트 기둥들; 철근이 들어간 시멘트로 만든 평궁륭형 천장. 산업건물들의 구조에서 유추된 골조에서 평면은 가벼운 칸막이에 의해 편안하게 배치된다. 최종가격은 이러한 건물들 중에서 가장 낮다.(Villa au bord de la mer construite en éléments de série: poteaux de béton armé tous les cinq mètres dans les deux sens; planchers en voûtes plates de ciment armé. Dans cette ossature analogue à toutes celles des bâtiments industriels, le plan se dispose à laise, par des cloisonnements légers. Le prix de revient est le plus bas parmi ceux du bâtiment.)”, *Ibid.*, t. 1, p. 28

14) 그러나 르 꼬르뷔지에는 의도는 당시(1921년) 사회 전체의 불황과 지원을 약속했던 은행의 파산으로 좌절된다: Jean Petit, *Le Corbusier, Lui-même*, p. 52

15) 여기서 그는 궁륭 사용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미래의 협동 마을의 건설 기술은 경제적 해결을 위해 궁륭 사용이 그 열쇠가 된다. 농장(‘빛나는 농장’), 협동마을은 금속조립용 표준부재로 구상되어야만 한다.(La technique de construction des futurs villages coopératifs est la clef de voûte de la solution économique. La ferme(‘La ferme Radieuse’), le village coopératif doivent être conçus sur des standard d’éléments de construction métallique.)”, *Le Corbusier, op. cit.*, t. 3, p. 105

11) “terrain hérissé de réglementations contradictoires, programme complexe, budget forcément très limité, puisque la construction privée est hors de prix aujourd’hui.”, *Le Corbusier, Œuvre Complète*, t. 5. p. 173

한 자연 재료의 아름다움과 경제 가치에 대해서 르 꼬르뷔지에는 이미 칠레의 에라쾨리스주택(Maison Errazuris au Chili, 1930)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힌바 있다: “재료가 거친 것은 명확한 평면과 근대건축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어떠한 흠도 되지 않는다.”¹⁶⁾; “이곳은 충분한 기술을 갖춘 노동력을 확보할 수가 없어 현장의 재료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지었다: 굵은 돌로 만든 벽, 나무 등지로 만든 골조, 평평한 지붕이 될 수밖에 없는 지방 기와 덮개.”¹⁷⁾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근대 재료의 사용이 아니라 장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의 아름다운 표현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에라쾨리스주택은 기존의 그의 건축미학의 경향을 뒤바꾼 시초가 되었다. 그러나 르 꼬르뷔지에는 최초로 지역 재료로 표현된 건축미학의 가치를 여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였음에도 그는 불행하게도 경비 문제로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것을 망드로부인 주택(Villa de Madame de Mandrot, 1930-1931)¹⁸⁾과 뽀르뜨 몰리포르의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비로소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틀리에의 돌로 만든 거대한 벽체는 일상의 친구가 되었다. 그 재질, 배합의 진솔함, 밀폐되고 중립을 띤 돌들의 색깔은 인간에게 안일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대등한 종(種)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⁹⁾ 르 꼬르뷔지에는 재료가 인간에게 주는 느낌과 아름다움을 일상의

생활에서 경험한 것이다.

자연재료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자, 그는 라 셀-쎡-글루드의 주말주택(Maison de week-end à La Celle-Saint-Cloud, 1934-1935)과 마테의 휴가주택(Maison de Vacances aux Mathes, 1935)에서 다듬어진 인공재료의 완전한 포기를 선언한다. 그러나 라 셀-쎡-글루드 주말주택은 비록 처음으로 궁극과 자연 재료가 완벽하게 결합한 건축미학의 가치를 보여주지만, 여기에 사용된 돌벽, 흙과 잔디로 덮은 철근콘크리트로 만든 궁륭지붕, 네바다형 유리벽들은 경제적인 요구라기 보다는 일차적으로 소유주의 요구에 답한 것²⁰⁾으로 주변 환경과 주택과의 동질성(identité) 확보가 우선 이었다. 반면에 후자는 철저하게 경제원칙을 따른 것으로 에라쾨리스주택과 동일한 상황에서 지어진 것이다. 르 꼬르뷔지에 스스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예산”²¹⁾으로 지었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그는 여기서 건조지역의 재료활용이야말로 미의

16) “La rusticité des matériaux n'est aucunement une entrave à la manifestation d'un plan clair et d'une esthétique moderne.”, Le Corbusier, *Œuvre Complète*, t. 2, p. 48. 자연재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일찍이 그의 저서 *Vers une Architecture*, p. XIX에서 “건축, 그것은 다듬지 않은 자연재료와 감동의 관계를 성립한다 (L'architecture, c'est, avec des matériaux bruts, établir des rapports émouvants)”라고 밝힌바 있다. 건축이론가 레이너 뱅햄(Reyner Banham)은 르 꼬르뷔지에의 이 말을 브뤼탈리즘(Brutalisme) 건축미학의 출발로 본다: Reyner Banham, “The new brutalism”, pp. 355-361을 참조할 것.

17) “Comme on ne disposait pas, à cet endroit, des ressources d'une main-d'oeuvre technique suffisante, on a composé avec des éléments existant sur place et d'une mise en oeuvre facile: murs de gros blocs de pierre, charpente de troncs d'arbre, couverture en tuiles du pays, par conséquent toiture inclinée.”, *Ibid.*, t. 2, p. 48

18) 그러나 여기서는 재료들의 접합부분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다. 비로 인하여 집은 끊임없이 누수 되었으며 망드로부인의 불평이 끊이지 않았었다: Gilles Ragot et Mathilde Dion, *op. cit.*, p. 152를 참조할 것.

19) “Le grand mur de pierre de l'atelier est devenu l'ami de tous les jours. Sa texture, la vérité de son appareillage, la couleur ferme et neutre de ses pierres constituent non pas un oreiller de paresse pour un homme, mais au contraire une espèce d'adversaire.”, H. von Willy Boesiger, *Le Corbusier, Les Editions d'Architecture*, Zurich, 1972, p. 66

20) Le Corbusier, *Œuvre Complète*, t. 2, pp. 125-126을 볼 것.

21) “un budget incroyable”, *Ibid.*, t. 3, p. 135

표현과 경비문제를 동시에 해결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신했던 것이다.

1940년 기술자와 작업반장을 위한 주택(Maisons pour Ingénieurs et Contremaître)과 전쟁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임시주택 “뮈롱댕(Murondins)” 계획²²⁾에 이어 쉐르셀의 농민주거단지에서 다시 궁륭과 결합되면서 지역재료와 궁륭을 이용한 주택이 서민을 위한 경제주택의 형태로 자리잡는다. 쟁뜨-봄과 깡 마르팽의 로끄 에 로브 주택단지, 뤼에페르교수 주택의 궁륭과 전통적인 조적공법이 이러한 발전 과정에 들어가며 그 완성이 마침내 자울주택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4. 사람의 집을 위하여?

1951년 여름 부지를 방문했을 때, 르 꼬르뷔지에는 태양의 궤적과 함께 주택의 기본 윤곽을 단숨에 그렸다: 벽의 형태, 자리에 앉혀질 두 집의 위치와 평면 그리고 정면과 내부, 빛과 그림자의 효과 등등.²³⁾ 처음부터 그는 “자연조건(conditions naturelles)”과 “빛과 그림자(lumière et ombre)”의 놀이를 통한 건축의 감동효과를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기복이 심한 땅의 조건에 앉게 될 두 집에 동일한 자연조건과 완벽하게 독립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않았다. 1955년 집이 완성될 때까지 그린 무려 600여장의 스케치와 도면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규모 면에서 자울주택과 비교도 안될 만큼 큰 프뤼제 주거단지의 도면이 당시 그 어느 건축가들 것보다도 많은 427장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자울주택의 어려움과 이 집에 쏟는 그의 정성을 쉽게 짐작할 것이다.

세 개의 대안(첫 번째: 1951년 10월, 두 번째:

1951년 11월 그리고 마지막은 1951년 12월)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1952년 1월 르 꼬르뷔지에는 두 주택을 외부 테라스를 중심으로 각각 남북과 동서로 길게 직각 배치하고 주 출입구를 북쪽에 놓았다. 그리고 주차장을 지하에 두어 자동차와 사람의 통행을 분리하였다. 두 집 사이의 외부 경계 벽과 통행로는 각각 두 집의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을 구분 짓기 위한 것이다. 위니떼 다비따씨옹의 개인 대 공동이라는 이등식(binôme)처럼 두 집의 독립과 공동생활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그러나 공사 중에 그는 갑자기 이들을 제거한다. 이것 또한 마르세이여의 위니떼 다비따씨옹의 계획과정을 상기시킨다. 마르세이여에서 르 꼬르뷔지에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모든 공공시설을 지상에 두었으나, 뒤에 이것을 건물내부에 넣음으로써 단위건물(unité)이 마치 바다의 여객선처럼 대지의 조건과 주변환경에 관계없이 건물 스스로가 홀로 작동하도록 한 것이다. 자울주택의 변경의도가 바로 이것을 따른 것이다. 경계 벽과 통로 제거 그리고 입구 위치의 변경으로 자울주택의 단위주거는 위니떼 다비따씨옹이나 뤼에페르교수의 주택처럼 어떠한 지형과 조건에서도 독자적으로 최대한 작동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울주택의 평면과 입면은 “인체와 수학의 결합으로 만든”²⁴⁾ 모듈오르(Modulor)를 기본으로 3.66미터와 2.26미터 트라베 그리고 2.26미터의 궁륭을 지지하는 인방보까지의 높이를 기본 “단위공간(cellule)” 치수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앞선 두 계획 마르세이여의 위니떼 다비따씨옹(거실과 부부방: 길이 3.66미터x 높이 4.8미터(2.26 x 2 + 약 0.5미터), 아이방: 길이 1.83미터 x 높이 2.26미터)과 깡 마르팽의 로끄 에 로브 주택단지(길이 2.26 x 폭 2.26 x 높이 2.26미터)의 모듈오르를 조합한 자신의 휴양용 오두막별장(Cabanon de Vacances à Cap Martin, 1950: 길이 3.66 x 폭 3.66x 높이

22) 뮈롱댕계획을 같은 동기에서 발표했던 20여 년 전의 돔-이노주택과 비교할 때, 그의 건축미학이 훨씬 더 현실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뮈롱댕과 돔-이노 주택에 대해서 Ibid., t. 3, p. 94와 Ibid., t. 1, p. 23 그리고 그의 저서 Vers une Architecture, p. 190을 볼 것.

23) Le Corbusier, “Carnet E 22” dans *Carnets 2, 1950-1954*, Illustrations 549-553 그리고 576

24) “Le Modulor est un outil de mesure issu de la stature humaine et de la mathématique.”, Le Corbusier, *Œuvre Complète*, t. 4, p. 55

2.26) 공간을 기본으로 하였다. 자신의 오두막별 장을 “성(château)”이라 부를 만큼 이 단위공간이 인간의 일상생활 주기에 가장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구성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단위공간이 자울주택에서는 자연환경(nature)과 건축과의 조화(harmonie) 우선으로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입면에서 그는 내부의 채광보다 외부재료간의 조화를 위해 대부분의 주택에 하나의 공식처럼 적용한 ‘가로로 긴 창’ 대신에 ‘ㄴ자형’ 창을 택했다. 사실 가로로 긴 창문을 사용했다라면, 내부 조명은 해결되지만 외부의 노출 재료를 이용한 조적공사, 노출콘크리트의 기둥과 기둥의 결합으로 짜여진 외부 표면의 조화는 파괴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울주택은 1955년에 지은 인도의 사람아이주택(Maison Sarabhai)에서 볼 수 있는 자연차양(brise-soleil)도 없다. 자울주택에서 그는 사람이 머무는 생활환경과 건축과의 균형보다 외벽의 표면과 자연과의 조화를 우선했던 것이다. 마리 자울의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 심각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집에는 채광에 문제가 있는데 그 상태가 매우 열악했다. 이 자연 빛은 아름답다기보다 다소 우울했다. 패널과 창의 분할 부분은 곧바로 태양이 지나가지만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더 어두웠다, 특히 아래 부분이. 겨울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오후 5시경이면 집안은 벌써 어두운 밤이었다. 집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 아무도 새로 지은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새로운 공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기둥과 벽돌이 왜 그렇게 지지 분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시멘트 칠은 흘러 내려 자국을 만들었고 르 꼬르뷔지에는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아니 이 작업이 뭐야, 구역질 나는군.’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말했다: ‘좋아, 괜찮아, 삶이란 그런 거야. 그렇지 뭐. 아주 아름다워.’”²⁵⁾ 마리 자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꼬르뷔의 집에서는 나는 조용히 지낼 수가 없었다. (...) 나는 공동생활을 지독히 싫어했다 그리고 내방에서조차 나는 나의 영역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내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아마 이 때의 경험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만약 르 꼬르뷔지가 진짜 가족을 생각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본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목재 칸막이, 벽돌 칸막이가 있었지만 나는 부모님들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었다. 옷장만이 부모님들과 나를 갈라 주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아주 생생한 추억이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나는 부모님 방에 있는 욕실의 물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리고 물소리는 두 집에서 동시에 들린다.”²⁶⁾ 이 글에서 르 꼬르뷔지가 그렇게도 애착을

passer le soleil par endroits, mais le reste est plutôt sombre. Surtout en bas. L'hiver, quand il faisait nuit, dès cinq heures, je rentrais. La maison était noire. (...) On ne voyait pas que la maison était neuve. L'espace nouveau existait bien, mais je ne comprenais pas pourquoi les voûtes et les briques étaient si sales. Du ciment avait coulé et Le Corbusier avait fait une crise terrible. 'Mais qu'est-ce que c'est que ce travail, c'est dégueulasse.' Et puis, finalement, plus tard, il avait dit: 'Bon, bien, c'est la vie. C'est comme ça. C'est très beau.' ”, Marie Jaoul, *Les maisons de l'enfance: la maison Jaoul, op. cit.*, p. 85

26) “Dans la maison Corbu, je ne pouvais pas vivre secrètement. (...) Je détestais la vie communautaire et j'avais perdu mon territoire à moi alos que j'avais une chambre. Que je vive seule aujourd'hui est peut-être rattachable à cette expérience. (...) Je me demande si Le Corbusier a vraiment réfléchi à la famille. Parce que moi, j'entendais tout. Il y a des cloisons de bois, ou de briques, mais j'entendais tout ce que faisaient mes parents parce que je n'étais séparée deux que par un placard. J'ai un souvenir très précis. J'entendais la chasse d'eau de la salle de bains de mes parents tous les matins... Et les

25) “Et en plus, il y avait des problèmes d'éclairage dans cette maison. Elle était très mal éclairée. Cette lumière naturelle est assez triste bien que belle. La répartition des panneaux et la découpe des fenêtres laissent

갖고 있던 개인 대 공동이라는 이등식(binôme)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생활의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개인생활의 자유를 규제하기 때문이다. 비록 르 꼬르뷔지에가 경제적인 주택의 원형을 자울주택에서 실현했지만 대량생산 주택을 위해 그가 예측했던 진정한 집, “웃지 않으면 적어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집”²⁷⁾에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5. 결론

르 꼬르뷔지에의 최초의 주택 계획안이라 할 수 있는 시트로안 주택에서부터 유럽에서의 마지막 주택인 자울주택까지의 발전 과정에는 ‘대량생산과 경제성’이 고려된 서민 주택용 재료에 대한 르 꼬르뷔지에의 집요한 탐구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노출콘크리트와 노출재료는 경제성 추구의 산물이며 그 건축미학은 19세가 말 20세기초에 나타나는 대량생산을 통한 예술의 대중화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즉 이것은 사실상 그의 일차 건축 목표에 수반되는 이차적인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사의 내면적 가치보다 그 표피적인 가치에 더 비중을 두었던 것이다.

따라서, 르 꼬르뷔지에의 자울주택에 관한 그의 일차적인 건축 의도에서 밝혀졌듯이, 어떤 건축가의 작품을 분석할 때 그 작품성의 가치에 앞서 작가의 본래 건축 의도에 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그 작품의 평가가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chasses d'eau s'entendaient dans les deux maisons.”, Marie Jaoul, *Ibid*, p. 85

27) “maison du rire ou du sourire”, Georges Candilis, *Bâtir la Vie*, Stock, Paris, 1977, p. 167

참고 문헌

- BANHAM Reyner, "The new brutalism", *Architectural Review*, december, 1955 .
- BOESIGER Willy von Herausgegeben, *Le Corbusier*, Les Editions d'Architecture, Zurich, 1972,
- BLAKE Peter, *L'Architecture Moderne est Morte à Saint-Louis*, Moniteur, Paris, 1980, 171 p.; trad. de: *Form Follows Fiasco: Why modern architecture hasn't worked*,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1977
- CANDILIS Georges, *Bâtir la Vie*, Stock, Paris
- FRAMPTON Kenneth, *L'Architecture Moderne, Une Histoire Critique*, Philippe Sers, Paris, 1985, 320 p.; trad. de: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Thames and Hudson Ltd., Londres, 1980
- Institut Français d'Architecture, *Corbu vu Par...*, Pierre Mardaga, Bruxelles, 1987
- JAOUËL Marie, "Les maisons de l'enfance: la maison Jaoul", *Architecture d'Aujourd'hui*, no. 204, septembre, 1979
- LE CORBUSIER, *Vers une Architecture*, Librairie Arthaud, Paris, nlle. éd., 1977, 253 p.; 1ère éd., 1923
- LE CORBUSIER, *Œuvre Complète*, Les Editions d'Architecture, Zurich, 1967, rééd., t. 1: 1910-1929, 215 p.; t. 2: 1929-1934, 208 p.; t. 3: 1934-1938, 176 p.; t. 4: 1938-1946, 208 p.; 5: 1942-1952, 244 p.; t. 6: 1952-1957, 223 p.; t. 7: 1957-1965, 239 p.; t. 8: les dernière oeuvre, 1970, 208 p.
- LE CORBUSIER, *Carnets*, Editions Herscher/Dessain et Tolra, Paris, 1981-1982, t. 1: 1914-1948; t. 2: 1950-1954; t. 3: 1954-1957; t. 4: 1957-1964
- MANIAQUE Caroline, "Les maisons Jaoul de Le Corbusier", *Histoire de l'Art*, no. 1/2, 1988
- MOOS Stanislaus von, *Le Corbusier, l'Architecture et son Mythe*, Horizons de France, Paris, 1971, 319 p.; trad. de: *Le Corbusier, Elemente einer Synthese*, Verlage Huber, 1968
- PATTYN Christian et al., *Le Corbusier, Ecritures*, Fondation Le Corbusier, Paris, 1993
- PETIT Jean, *Le Corbusier, lui-même*, Editions Rousseau, Genève, 1970
- RAGOT Gilles et DION Mathilde, *Le Corbusier en France*, Electa Moniteur, Paris, 1987
- STIRLING James, "Garches to Jaoul: Le Corbusier as domestic architect in 1927 and 1953", *Architectural Review*, september, 1955,

MAISONS JAOL DE LE CORBUSIER: UN PROTOTYPE POUR LA CITE HORIZONTALE EN SERIE

Chong, Sung-Hyun

RESUME

Cette étude vise à trouver l'intention originelle de Le Corbusier(1887-1968) dans les Maisons Jaoul à Neuilly-sur-Seine (1951-1955). En général, on regarde ces maisons comme une autre architecture de Le Corbusier ou un des oeuvres du Brutalisme International. Mais, en considération du développement architectural de Le Corbusier, les Maisons Jaoul a été une des deux réalisations de la maison économique en série que Le Corbusier a étudiée pour la vie: l'un a été l'Unité d'Habitation à Marseille(1947-1952) pour la cité verticale en série et l'autre les Maisons Jaoul pour une cité horizontale en série. Pourtant, ces maisons ne sont pas parfaites pour l'homme. Selon Marie Jaoul qui est une petite-fille d'André Jaoul, Le Corbusier a préféré l'harmonie entre la nature et l'architecture plutôt qu'entre l'homme et l'architecture.